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서면질문)

【생활복지국장 : 이종석 / 환경과장 : 배철 / 기후변화대응팀장 : 강승모 / 주무관 : 환경8급 하성숙】

연락처(☎) : 2600-4020

장계자 의원 구정질문 내용

(1) 날로 더욱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대처 방안은?

- 답변내용 ----- (환경과)
- 평소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신 장계자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장계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대처는 장기적으로 국가(환경부)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지속적인 시간 및 많은 예산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역할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우리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 녹색제품 구매 유도 및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우리구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8개교를 환경보전시범학교로 지정, 기후변화 및 환경교육 실시하고 있으며

- 강서구 소재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주제로 기후변화대응 작품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또한, 환경호르몬의 위험성을 알리고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 및 지구 온난화 방지 등을 알리고자 구민을 대상으로 강서환경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구 홈페이지, 강서까치뉴스 등을 통한 홍보 전개, 관내 아파트 단지, 사업장, 학교 등에 참여 유도 및 민·관 합동으로 에코마일리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 가정에 에너지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에너지 사용패턴을 진단하고,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을 제공하는 에너지 클리닉 서비스를 실시하여 에너지 절약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질문에 대한 답변서

(서면질문)

【기획재정국장:정영숙/기획예산과장:백상신/정책기획팀장:김동영/주무관:행정 8급 이길순】

연락처(☎) : 2600-6123

장계자 의원 구정질문 내용

2. 구 심의위원회 통폐합에 대한 생각은 ?

- 답변내용 ----- (기획예산과)
- 먼저, 구정 각 분야에서 운영 중인 각종 심의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장계자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우리구는 관계법령, 조례 등을 근거하여 현재 76개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나누면, 인사, 예산 등 일반행정과 관련하여 36개 위원회가 있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청소, 교통분야로 31개가 있으며, 각종 기금 운영과 관련해서는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 각 위원회는 소관부서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심의, 의결,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좌기구로서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데 그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 최근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행정 각 분야에서 주민참여가 더욱 활발해짐에 따라 위원회가 종전보다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 따라서,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의 남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정 각 분야에 산재된 여러 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유사·중복된 위원회가 있으면 통·폐합해나갈 계획입니다.
 - 다만,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반드시 필요한 심의위원회는 제외하고, 위원회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운영실적 저조, 다른 위원회와의 유사·중복 기능 위원회, 단순 자문 성격의 위원회 등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하겠습니다.
 - 또한, 위원회 신설 시에는 반드시 유사위원회 존치여부 확인 후 설치토록 하고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질문에 대한 답변서

(서면)

【행정지원국장:최병주/문화체육과장:김진선/문화시설팀장:권용갑/주무관:계약 라급 이영주】

연락처(☎) : 2600-6804

장계자 의원 구정질문 내용

3. 기념관 등의 소장용 작품(유물)구입기금의 예산반영에 대한 방안

□ 답변내용 ----- (문화체육과)

- 우리구 문화시설 업무에 애정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기념관 등의 소장용 작품(유물)구입기금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유물구입기금 재원을 확보하여 유물수집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이후 구 재정상 기금예산 미확보로 2011년부터는 유물수집사업을 한번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대안으로 겸재정선기념관은 2010년부터 매년 민간위탁금의 일부 예산을 활용하여 영인본을 제작하였고, 허준박물관은 타 박물관 유물 대여 및 기증사업 실시 등을 통해 전시품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 2014년 예산에 유물구입기금을 1억원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예산부서에서 전체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되어 민간위탁금에 소액을 편성하여 영인, 기증 등을 통한 작품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 허준박물관, 겸재정선기념관 시설의 정체성 및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물을 수집하여야 하므로 소액의 금액이라도 매년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질문에 대한 답변서 (서면)

【행정지원국장:최병주/주민자치과장:곽호상/자치운영팀장:신현영/주무관:행정7급 안진희】

연락처(☎) : 2600-6158

장계자 의원 구정질문 내용

4. 자치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20개 동 헬스장 관리자의 운영개선 방안과 정리계획은?

□ 답변내용 ----- (주민자치과)

- 먼저 자치회관 헬스장 운영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장계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헬스장 이용 현황으로는, 20개동 22개소에서 평일에는 오전6시부터 하루 평균 16시간 동안, 토요일에는 평균 10시간 동안 개방하고 있으며, 동평균 매월 300여명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헬스장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보통 관리인 2~3인이 교대로 근무하며 접수, 안내, 청소, 시설관리 및 각종민원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타 자치회관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이용인원이 월등히 많아 근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 이렇듯 헬스장 관리인 자원봉사자 활용 등 각 동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동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또한 구에서도 매년 자치회관 강사교육 시 헬스장 관리인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헬스장 관리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구청질문에 대한 답변서

(서면)

【행정지원국장 : 최병주/행정지원과장 : 육춘수/인재개발팀장 : 이윤임/주무관 : 행정 7급 황미연】

연락처(☎) : 2600-6312

장계자 의원 질문사항

(3) 그리스도대학교 계약학과 운영의 문제는 ?

□ 답변내용 ----- (행정지원과)

- 강서구 직원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우리구는 2009년 3월 최초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3조」에 따라 그리스도대학교(산학협력단)와 복지행정학과 학사과정에 대하여 ‘산학협력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년 2월 석사과정을 추가하고 학사과정에 대해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학사51명 석사5명에 대해 총553,400천원 교육비(구 부담50%)를 지원하였으며 2013년 1,2학기 수료자들이 2014년 2월에 졸업하면 계약학과 과정은 종료하게 됩니다.
- 당초 계약학과는 미래사회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비한 선진 복지인력을 양성하여 복지행정 향상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출발하였으며 전국에서 손꼽히는 복지수요가 있는 우리 구의 사정상 유.무형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보나 인적자원 활용면에서는 강제할 수 없는 사항으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 또한 운영하면서는 주요 협약사항인 학과설치 정원(20명)에 해당하는 학생 모집에 애로가 많았으며 학생 개인별 예산지원도 우리 구 또 다른 고등교육 지원제도인 대학.대학원 지원제도에 비해 높아서 현재와 같은 예산사정에서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따라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013년 이후에는 특정대학과 특정학과에 대해 산학협력 계약학과를 설치하기 보다는 학습자 본인이 원하는 학교, 학과에서 수학하고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위탁교육 방식이 학습자나 구 입장에서나 보다 효율적인 직원들 학습지원 제도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